

Congratulatory message



Federal Councillor and Foreign Minister Didier Burkhalter, Federal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It is my great pleasure to congratulate the Republic of Korea and Switzerland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In order to celebrate this special occasion with you, Switzerland honors the commemoration of 50 years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is publication.

My recent visit in March 2012 to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showed me that despite the geographical distance and our different languages, our two countries have much in common. We share the same values based on mutual respect and beneficial exchanges in politics, trade, science, education and culture.

When I visited a traditional teahouse in Bukchon with my spouse during some leisure time, I was not only impressed by the beautiful architecture, but also by the unity and harmony of the buildings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The progres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ast few decades is remarkable. Although aiming for modernity, the Korean people - like the Swiss - have not forgotten their roots and traditions. Instead, we both aim for unity and harmony.

Over the past years, business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intensified considerably and economic exchanges have grown remarkably. This is due not least to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EFTA/Switzer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been in place since 2006. At the same time, scientific and academic exchange has brought our partnership to a new level, yet also offers scope for further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During my stay I also paid a visit to Panmunjeom to meet the Swiss delegation to the 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NNSC). It is Switzerland's conviction that only through increased interaction and dialogue will the necessary confidence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the different parties be achieved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signing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in 1953, Switzerland has been present in Korea. We will continue this mission as long as necessary in order to contribute to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celebrate the 50 years of our partnership, the Republic of Korea is hosting the Expo 2012 Yeosu with the theme "The Living Oceans & Coasts". Though it is a landlocked country, Switzerland was one of the first European nations to decide its participation, a tribute to our friendship and our common commitment to a sustainable future. Under the theme "The Source. It's in your hands", the Swiss pavilion plays on my country's connection to the oceans as the source of many of Europe's main rivers. I am sure it will bring Switzerland even closer to the Korean public.

The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witzer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stronger than ever.

Through joint efforts on both sides, our ties - political, cultural, economic and in human relations - are growing more solid by the year. Since both countries are committed to building on our excellent relationship in the future, I sincerely believe that we can further deepen the cooperation and friendship between Switzer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over the next 50 years.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연방각료 겸 외교 장관

대한민국과 스위스의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이 특별한 때를 여러분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스위스는 이 책자를 통하여 한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 50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최근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차 한국에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리적 거리와 상이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국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 무역, 교육, 문화 분야에서 상호 존중과 호혜적 교류에 기반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 기간 중 여가 시간에 아내와 함께 북촌에 위치한 전통 찻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건축물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건물이 주변 환경과 만들어내는 조화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실로 경이로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현대화를 추구하긴 했지만, 한국인들은 스위스인들과 마찬가지로 뿌리와 전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양국 모두 통합과 조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스위스와 대한민국 간 비즈니스 관계는 대폭 강화되었고, 경제 교류도 눈에 띄게 활발해졌는데, 이는 특히, 2006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과 한국 간에 체결한 한-EFTA FTA 덕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 및 학술 교류는 양국 파트너십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호 호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방한 기간 중,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판문점도 방문하였습니다. 스위스는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다른 행위자 간에 필요한 신뢰와 이해가 더 많은 교류와 대화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스위스는 한국에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대표단을 상시 파견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이 임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스위스는 내륙국이지만, 최초로 박람회 참가를 결정한 유럽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이는 양국 간 우의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스위스관은 "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주제 하에 스위스가 유럽의 여러 주요 하천의 원류로서 해양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이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스위스와 한국의 관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고합니다. 양국의 공동의 노력으로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인적 관계가 해가 갈수록 더욱 견실해지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지금까지 이어온 특별한 관계를 향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50년 간 스위스와 대한민국 간 협력과 친선관계가 더 공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